

‘탄소 규제 근거 폐기’에 얼어붙은 美 전기차...HEV 뜬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출 86% 급감...미국 HEV 판매는 증가세

스포티지·셀토스 하이브리드 ‘광주공장 효자’ 부상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이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하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전기차 전환의 시계가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EV) 중심으로 기울었던 정책 축이 흔들리면 자동차 시장이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 중 광주에 생산 기지를 둔 기아의 전략 차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마련된 이 판단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미국 내 배출규제와 전동화 정책의 법적 근거였다.

여기에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IRA)도 지난해 폐기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이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량은 1만 2000여대로, 전년 대비 86% 이상 급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시장은 확대 추세다. 지난해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는 210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33만 1692대로 전년보다 4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초기 가격 부담,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기아 오트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대표 차종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번 시장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 후보로 꼽힌다. 북미에서 이미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연비와 공간 활용성, 가격 경쟁력을 고루 갖춘 준중형 SUV라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흐름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의 수요가 ‘완전 전기차’ 대신 연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HEV로 이동한다면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6년 만에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돌아온 셀토스 하이브리드 역시 주목된다. 소형 SUV인 셀토스는 북미 시장에서 이미 탄탄한 수요 기반을 확보한 모델인 데다 신형의 미국형 선적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해 광주공장의 ‘효자’ 차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형·가성비 SUV를 찾는 미국 소비자층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역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바로 내연기관차 중심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로 이동한다고 내다봤다.

현대차·기아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기존 공장의 혼용 생산을 통해 HEV 비중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 서구 기아 오트랜드 광주 2공장에서 스포티지가 생산되고 있다. (기아 오트랜드 광주 제공)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는 전동화 가는 과정 중 소비자 효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미국 수요 변화에 맞춰 생산 믹스(혼용)를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I 열풍에 메모리 블랙홀...車반도체 수급 ‘긴장’

DRAM 수요급증에 가격 최대 2배 상승...고급차 타격 우려

인공지능(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수급불안 등에 따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발진한 “2026년에 주목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AI 확산에 따른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수요는 올해까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확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이 우선되면서 DRAM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구조다.

당초 학습용 GPU에 집중됐던 AI 수요가 추론 영역으로 확산하며 DRAM, 전원 공급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 ‘낸드

(NAND) 등 범용 메모리까지 빨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됐고 그 여파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해 차량용 DRAM 가격이 신규 계약 기준 전년 대비 70~100%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가격 상승 자체가 즉각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통상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는 인증과 품질 검증 절차가 엄격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난에 대한 ‘공포’가 확산해 완성차·부품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설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자동차용 반도체 재고

일수는 최근 150일 수준에서 149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영향은 차급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대중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메모리 용량을 사용하지만 고급 모델은 음성비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TA(무선 업데이트) 등 기능 탑재로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AI발 수급 불균형과 지정학적 긴장도 변수다.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마·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 공급망 리스크는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위험 대응 차원에서 재고를 늘리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해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해나 기자 khn@

볼보도 내렸다...전기차 ‘가격 전쟁’ 본격화

EX30·EX30CC 최대 761만원 ↓...현대차·기아, 할인·금융혜택 강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과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볼보자동차 EX30. (볼보자동차코리아 제공)

미국·중국계 전기차 브랜드의 ‘가성비’ 공세에 대응해 가격 전략을 강화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이 수렴해 브랜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3일 “EX30의 코어·울트라 트림과 EX30CC 울트라 트림 등 주요 라인업의 판매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EX30 코어 트림은 기존 대비 761만원 내린 3991만원으로 책정됐다. EX30 울트라 트림은 700만원 인하된 4479만원, EX30CC 울트라 트림은 700만원 내린 4812만원에 판매된다. 옵션 구성은 유지한 채 공식 판매가를 낮춘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실구매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볼보의 이번 조치는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경쟁이 격화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앞서 기아는 EV5 통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가를 각각 280만원, 300만원 낮췄고, 2026년식 EV3·EV4는 가격을 동결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현대 EV 부담 다운’ 행사를 통해 전기차 할부 금리를 기존 5.4%에서 2.8%로 내리며 금융 혜택을

강화했다. 업계는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배정으로 테슬라와 BYD의 성장세를 주목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중국산 모델을 들여오며 판매가를 대폭 낮췄고 연간 5만 9893대를 판매하며 1위 기아(6만 609대)와의 격차를 1000대 안으로 줄였다. BYD 역시 아토3, 실, 씨라이언7 등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6000여대를 판매하며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가격과 금융 조건 등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축소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나 금융 지원은 사실상 필수 전략이 됐다”며 “올해 전기차 시장은 ‘브랜드’보다 ‘가격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해나 기자 khn@

“차 안에서 만나는 포켓몬”...현대차,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펠리세이드·쏘나타 등 6개 차종

현대자동차는 “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한 ‘포켓몬 피카츄 전광석화 테마’와 ‘포켓몬 메타몽 월드 테마’를 신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가 선보인 포켓몬 피카츄 전광석화 테마. (현대차 제공)

포켓몬스터 테마는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표 차량을 등록하고 현대차 블루링크 스튜디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차량은 디올 뉴 펠리세이드, 아이오닉 9, 디올 뉴 넥쏘, 더 뉴 아이오닉 6, 2026 쏘나타 디 에지, 더 뉴 스타리아로

추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 차종이 확대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고객들은 포켓몬 디자인이 적용된 ccNC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화면의 색상과 그래픽, 내비게이션 운행 정보, 시동을 걸고 끝 내 나오는 애니메이션 등을 즐길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규 테마 출시는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표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객이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